

**전형필선생 문화인물선정기념
소장 국보·보물등 1백여점 공개
간송추모특별전**

**사리장엄구·탁본등 2백여점
려말·선초 불상 비교관람 기회
고려말 조선초 미술전**

가을 끝자리... 두 대형 전시



간송추모특별전에 선보이고 있는 금동삼존불상(국보 73호).

불교문화 현상공모 8개 부문 440여편 접수

'96 문화의 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 문화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1996 천만인 고리 불교문화현상공모'에 총 440여편이 응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0월 31일까지 도착한 응모작들을 집계한 것으로 30일 차 우편소인이 찍힌 도착분이 추가된 것으로 11월 9일경 응모 작품수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40여편 중 장편소설 25편, 중·단편소설 80여편, 시 2백여편, 시조 50여편, 희곡 15편, 시나리오 30여편, 공론 15편, 동화 15편 등으로 전 부문에 걸쳐 고루 응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작 등 심사표본은 11월 30일 개별통보 및 조계종 총무원청사 3층 계시관에 공고하며 불교계 신문에 게재한다.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화지도' 출간

전국 곳곳 '문학 산실' 한눈에

전국 각지에서 문향(文香)을 피우고 있는 많은 문학유적을 지도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유적지도가 나왔다.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문인들의 행적과 이야기 등을 담고 아울러 현장방문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 인근의 관광지, 식당 등을 일러스트리드와 함께 수록한 테마 관광안내서 '한국문화지도'는 '문학의 해'를 기념하여 동국대 부설 한국문화연구소(소장 홍기상)가 각 3백여쪽 두권으로 펴냈다(계몽사 판).

'문화지도'는 정재봉 박지현 이근배 조병무 이문구 이종찬 임기충 이종대 장영우 등 문학전문가와 작가 등 58명이 지난 수개월간 전국 165개 시 군 구의 현지답사를 통해 시비(詩碑), 작고문인의 생가, 작품의 배경을 직접 취재 촬영했으며 문학유적을 바라보는 감회와 여정의 단상까지 담았다. 여기에 실린 인물은 총 7백여명.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는 각 지역의 대표문인들과 문화사적을 통시적으로 정리했다.

만해스님의 생가가 있는 홍성, '서동요'의 주인공 공 백재 무왕이 선화공주와 혼인한 뒤 건립했다는 사자사터가 있는 익산, 이광수가 1944년부터 4년 간 머물면서 작품을 집필했던 남양주 봉선사, 심훈이 불후의 명작을 썼던 단진 보경사, 김성동의 만다라'의 배경인 천축사 등 명작의 고장이 되었던 절의 이름들도 여러개 등장한다.

특히 이 지도에 의하면 한용운 스님은 그의 시비가 홍성뿐 아니라 성북동 심우정, 동국대, 백담사, 제주도, 지리산 화엄사 등 전국에 퍼져있어 김소월과 더불어 대표적인 민족시인인도 증명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양박물관이 '간송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국립 전주박물관에서는 개관 6주년 기념으로 오는 24일까지 고려말과 조선초의 미술과 공예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 불상 사리장엄구 범종 향로 고문서 목판 활자인쇄 시경 어보 회화 도자기 등 135점과 탁본등 65점등을 합해 총 2백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고려말의 불상들은 잘못된 허리와 앉아있는 모습 등 관능미까지 느끼게 하는 자세와 화려한 장식에서 중국 원나라와



고려말 조선초 미술전에 나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취선사 목적집 발간

강천사 신도회, 스님열반 4주기 추모

강천사 신도회(공동대표 이무위성 김연호)는 조계종 원로 의원을 지낸 노노담 대취선사(1907~1992)의 목적(墨跡), 서예, 도예, 인보(印譜), 사진 등을 모아 전시하는 목적집을 개최하고 목적집 <老老大德墨跡>을 펴냈다. 스님의 열반4주기를 추모해 펴낸 이 목적집에는 대취선사가 평소 수행하는 틈틈이 쓴 '無盡藏' '금강경' 등 선필이 들어있다.

이흥기 선화전

"탈속의 세계 표현" 16일까지 불일미술관

지난해 1월부터 송광사 '불일선화'의 표지를 아름다운 선화로 장식해 오고 있는 일지(一止) 이흥기(40)씨가 작품활동 17년만에 첫 개인전을 갖는다. '침묵속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에는 '大地人三舍'(사진), '달마도' '히말리아 명상곡' '뽕나무' 등 작품 35점이 선보이고 있다.

이씨는 전통수묵화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파지가 된 옛전적, 낡은 러닝셔츠와 조각부 등을 활용해 독특한 운필과 파격적인 표현으로 삶의 체취가 그대로 배어 있으면서도 순수하고 탈속한 선화의 세계를 보여 준다.

동요·동시-박준형군 산문 부문-강희준군 불교 어린이글짓기 최우수상

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 주최 제15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현상공모에서 △동요 동시부문에 박준형(은석초등학교 4년)어린이의 '수계받던 날'이 △산문부문에 강희준(은석초등학교 2년)어린이의 '할머니의 염주'가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전국 212개 사찰에서 총 31,532편이 응모되어 89편이 입상한 이번 글짓기 공모의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 4시 삼청동 칠보사에서 거행한다.

수계받던 날 <동요·동시 최우수상>
머운 어늬날
봉암사 백운대승 향해

격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누나 형 나 동생들
가파른 강 오르면서 만세음보살
업봉하시는 우리 할머니
무엇을 기원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오르실까.

엄마는 아빠는
식구들을 살아하면서
역심히 살아가지고 빚고 계시겠지!
동생아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자고...
백운대에 도착하니
아미타여래 석불이 우니보고
자비스런 미소 지으시네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과 같네.

내 마음이 항상
수계받던날 같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 하수 있으면
비준형 <은석초등 4년>

불심시심 <67>

등불처럼 파란 눈

寒到黃昏寺 (객도황혼사)
僧迎白月庭 (승영백월정)
上房深夜話 (상방심야화)
燈與眼俱青 (등與眼俱靑)
(등여안구청)

황혼에 짙은 나그네
스님은 달 뜨는 뜰에서 맞네
깊은 밤 선방의 이야기
등불과 눈빛 함께 파랗다

이 시는 무용(無用)대사(1651~1719)가 홍양군수에게 준 시이다. 대사의 휘는 수연(秀演)이요 자가 무용이었다. 승속간에 모두 무용이라 부르니, 그저 그대로 무용으로 호를 삼았다 한다. 그뿐 아니라 스님 자신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겸손으로 무용이라 하였던 것 같다. 어느 스님이 범어를 구하니까 다 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옛 사람이 말한 대담에는 모두가 지시하는 것이 있으나, 이 높고 졸렬한 이는 재주가 없어 별로 지시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쓸모없는 자가 쓸모 없게 된 이유인가 보다" 하였다.

스님은 자신 스스로 쓸모 없었지만 당시의 법계에서는 그를 크게 쳤다. 선문에만 밝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가, 침관선사에게 나아가 2년이 채 못되어 크게 이룬다. 침관선사에게 "법계가 모두 너에게 있다" 하였고, 이어 백암선사를 만나니 "금강선문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냐"며 인정하였다.

29세에 신불암에서 감석이여니, 참학하려는 이가 물려 감석이 집었다 하니 스님의 경륜을 짐작할 만하다. 이렇게 시작된 강론이 69세의 나이로 입적하시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스님은 이렇듯 많은 감석을 열어 문도를 교화하여 조선 중기 이후의 한 문파를 형성하였다. 그뿐 아니라 속가와 외의 교본도 폭넓어 당시의 관리나 선비들과 주고받은 시가 많다. 위의 시도 그러한 과정에서 쓰여진 한 편의 시 이면서 대사 스스로 말했던 무용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라 하겠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군수가 스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어둠을 띠고 찾아온 손님이다. 스님은 달빛을 띠고 반갑게 마중을 나왔다. 시구의 대가 묘하다. 황혼의 짙, 백월의 뜰이다. 해저녁의 일반적 경치이기는 하지만, 시어로 한 공간에 모아놓고 보면 좀더 별다른 의미를 준다.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음이다. 이쪽은 짙고 저쪽은 달이다. 명암 상하가 무리없이 맞물린 공간이다. 여기에 발강도록 나 누는 대화이다. 등불과 눈이 아울러 파랗다. 파란 눈은 지혜의 눈이다. 두 사람의 의기와 의기가 투합됨을 은연중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이 시는 상황과 상황을 말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저 담박할 뿐이다. 무용이라는 스님의 당호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각종수입항, 염주 일체 품목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6345, 팩스:777-1917

디스크·관절염·비만 시술 및 개인지도

◆ 각 관절·척추·골반·교정법
◆ 음양오행·기공·지압법
◆ 목·허리 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비만·중풍예방 시술·지도

전화 : 543-7306·711-4370

長三洙 척추교정·지압원

포교 할 사찰 구함

포교의 서원을 이루어갈 사찰을 구합니다.

▲ 희망지역: 여주·용인·이천·원주 진안·평택·서산지역, 수원근교

연락처 : (0331)252-8484-5 39-1212-3

사찰안내

산세 수림정당한 곳에 사찰 운영하실분들 찾습니다

■ 목포중심지
■ 법당 : 23평, 요사채 : 20평
■ 건평 : 200평
■ 물 지하수, 교통편리
■ 비용 :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62)525-4417 011-579-9865

탈종공고

주소: 경북 구미시 구평2동 127-14번지

사찰명: 극락사

주지: 지혜(智慧)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을 수행 할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1월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 불교 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포교당 안내(최적지)

◆ 위치: 동래 온천3동
◆ 평수: 80평·방 7개
◆ 전세: 8000만원
◆ 시설·비품대 가격 절충
◆ 수리한 정원

전화: (051)504-3172 핸드폰: 011-853-3172

공양주 보살님

◆ 위례산 금성사 기도도량
◆ 천안시 임정면 호당리
◆ 40~60세 공양주 보살님

연락처: 0417-61-8453

탁자, 담집, 범상, 문짜,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함선(해인사) 대적광전 범상 경상
■ 의왕시(대선사) 대웅전 수미단 단립 문짜
■ 서울(예화사) 법당 수미단 종각 복원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짜
■ 화진(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짜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범상 경타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짜 단립
■ 포천(학전사) 대웅전 문짜 단립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립경타경상
■ 서울(학원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전 드론 011-282-4609
팩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協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전통과 기술로써 각 사찰의 범당을 정밀하여 단 년을 기리 남을 정성들 다 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협장

진도 양계사: 서왕전, 불단
속초 구복사: 천불전, 단립, 선산각, 문짜
제주도 원각사: 불단, 단립, 범상등의
설악산 오계암: 천불전, 단립
삼각산 연화암: 천불전, 단립의 등
구로동 원운사: 불단, 문짜
불교여래원: 불단, 문짜, 경각의
명유리 보문정사: 불단
안양역약수암: 불단, 단립, 천불의 다수 사찰 봉사

연락처: (0346)553-6480 011-266-6485

포교당 안내

위치: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051)514-0331~2

사찰안내

▶ 위치: 충북 ▶ 요사채: 20평
▶ 법당: 10평 ▶ 대지: 94평
▶ 가격: 7천5백만원

전화: (0373)374-4459

明堂 사찰부지 묘지터(급매) * 양귀요에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壬佛里)
■ 임야: 33500평
■ 가격: 평당 7500원(시세 절반, 일시불조정가)

■ 특징:
▷ 2차선 도로 인접(코란도 진입가, 도로에서 산까지 1km)
▷ 관광호수 근접, 88고속도로 거창 IC에서 10분, 생수공장, 기도원, 회사연수원부지, 옛제지목장(대용도산)
▷ 명당터(월계관형국)지질, 산세수려함

연락처: (0343)71-7242 74-7775(산주)

기도·수양 하실분

◆ 1인1실·육실완비
◆ 비용: 월30만원·속식제공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반석1리 불광산 정토원

전화: (0338)71-8209·8210